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 :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Disintegr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Family/Kinship Structure Among the Rural Families of Korea*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옥 선 화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 수 김 주 희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박 혜 인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 수 신 화 용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 수 한 경 혜

시간강사 고 선 주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Ok, Sun Wha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Professor : Kim, Joo Hee.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

Professor : Park, Hye In

Dept. of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 Shin, Hwa Y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Associate Professor : Han, Gyoung-Hae

Lecturer : Koh, Seon Ju

◀ 목 차 ▶

I. 서 론

II. 농촌가족의 특성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 론

참고문헌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disintegr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family/kinship structure among the rural families of Korea. For this study, detailed data about the value related to the family/kinship, the family relationship, The attitude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social network, and the family/kin rites are gathered. A total 593 subjects comple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Major conclusion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most of the rural respondents are found to support familism and boy preference slightly, and not to agree the reward of child value. So, their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values are changing slowly than urban residents.

Second, the rural respondents shared the common perceptions that spous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has been changed toward the direction that the positions of wives and children are respected and the their influences are increased in the past 10 years. In addition,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relationship change and appropriate roles of wives and husbands are discovered. However, sex differences previously revealed in Seoul study were not found in the case of rural respondents.

Third, generally, there are both remaining and changing aspects of conservative attitude toward divorce and remarriage, the level of change is different according to age and sex. And the difference by age is stronger than by sex.

Fourth, the social networks of the respondents is characterized by two distinct trends, namely, strong parent-adult child ties and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rs.

Fifthly, in the family/kin rites, traditional aspects coexist with changing aspects under the influence of industrialization and westernization. But the aspects of attitudes toward rites, it is showed the non-traditional tendency. Respondents who support westernization and socialization of family rites are young, highly earned, and Christian.

I. 서론

생산양식의 변화에서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그 영향력이 파급된 산업화, 도시화는 도시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왔으며 농촌 사회 역시 격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도시에 비하여 농촌 사회는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사회의 해체 등 결과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농촌의 변화를 단순하게 보면 농가수의 감소이지만 이는 결국 농촌 가족의 분산과 해체, 그리고 이로 인한 가족형태와 역할의 변화에 따른 농업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외형적으로 경제적 발전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는 도시에 비하여 수동적 변화를 경험한 농촌은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자녀세대의 농업계승 회피 등으로 농촌사회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

한 농촌의 변화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농업계승의 단절로 인한 농촌 사회의 여성화와 고령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결국 농촌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농촌의 여성화는 여성 노동의 과중을 불러오고 이는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농촌청년의 배우자 선택 문제 같은 가족형성과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농촌 가족의 노령화는 기존의 가족과 친족 공동체의 해체와 더불어 농촌가족의 점차적인 소멸까지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있는 농촌에 대한 연구는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 영역이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촌에 대한 연구 자체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농촌 사회 전반적 구조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¹⁾의 농촌에 대한 시각은 농촌 사회가 처한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결국 도시의 시각에서 본 농촌

의 모습으로서 농촌의 경제적인 압박, 그로 인한 농가 인구의 감소, 또 다시 농촌의 여성화,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주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이 어떻게 황폐화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면서 농촌의 해체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만으로는 농촌 가족의 생활 변화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촌생활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구나 농촌사회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때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동성은 간과되기 쉽다. 비록 농촌사회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개별 가족의 구성원들이 단일한 가치를 지니고 동일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변화의 차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가족학자들²⁾이 농촌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특정 주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므로 농촌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에는 적합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변화하고 있는 농촌 가족 연구는 가족과 친족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근간으로 한 사회에서 노동력의 제공과 관리를 담당하는 가족과 친족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농촌 사회를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농촌사회 자체의 해체와 소멸을 우려하는 이 시점에서 농촌 가족과 친족에 대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농촌 사회 자체의 해체와 재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경험해온 그간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급격한 가속도로 인해 심각한 세대차이를 낳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이미 도시지역 연구(옥선화 외, 1998)에서 규명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체된 듯이 보이는 농촌의 경우에도 기존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수용태도에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니는 농촌 여성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과 반응은 남성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과 친족

관련 가치관과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농촌 주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농촌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및 생활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가정생활 의례의 변화상을 규명함으로써 농촌의 가족과 친족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가족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한국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 농촌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변화과정과 현황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농촌 사회의 주요 조직 원리인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농촌사회 내부의 변화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농촌가족의 특성

농촌의 가족과 친족 구조의 특성을 규명하기에 앞서 한국의 농촌가족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농촌가족의 제반특성은 인구 및 가구, 세대구성 및 가족형태, 경제수준과 교육수준, 직업, 종교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인구 및 가구

우리나라의 농가수 및 농가인구³⁾를 살펴보면, 전체가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975년 35.2%에서 1995년의 경우 11.6%로 감소하였으며,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1975년 37.5%에서 1995년 10.9%, 1999년에는 9.0%로

- 1) 권태환(1992), 김홍주(1992, 1995a, 1995b), 변화순(1993), 최양부·오내원(1992) 등의 연구는 모두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백양희·최외선(1996), 서광희·조병은(1993), 서병숙·김유정(1993), 옥선화(1990), 윤복자 외 6인(1990), 이영미·김주희(1991), 한경혜·장미나(1993) 등을 비롯하여 농촌을 대상으로 특정주제를 연구한 결과는 여러 편 있다.
- 3) 1995년도의 농촌인구(인구주택 총조사 시 읍·면 인구)는 총인구의 21.5%(9,572,000명)이며,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11.6%이다.

〈표 1〉 능가 및 능가인구⁴⁾

단위: 천호

연도	총가구	농가구 (구성비%)	총인구	농가인구 (구성비%)
1975	6,574	2,379(35.2)	35,281	13,244(37.5)
1985	9,571	1,926(20.1)	40,806	8,521(20.9)
1995	12,958	1,501(11.6)	45,093	4,851(10.9)
1998	-	1,413	46,430	4,400(9.5)
1999	-	1,382	46,858	4,210(9.0)

자료: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agringo/statistics_02_02.asp

〈표 2〉 농촌지역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및 평균가구원수

연도	가구원수 가구분포(%)						평균가구원수 (명)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1975	3.9	7.6	11.0	14.4	17.1	45.8	5.3
1985	7.2	13.7	15.9	21.2	18.3	23.7	4.2
1995	15.6	24.9	18.7	22.3	11.6	6.9	3.1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3〉 농촌지역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1975~95

단위: %

연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단독가구	비혈연가구	계
1975	5.2	64.5	24.9	1.4	4.0	-	100.0
1985	8.1	50.1	16.0	0.6	24.3	0.9	100.0
1995	19.8	50.6	12.4	0.4	15.6	1.2	100.0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표 1). 또한 연소인구(15세 미만), 노동인구(15~64세), 노년인구(65세 이상)의 3대 연령집단의 비율은 1995년 각각 20.2%, 68.1%, 11.7%로서 특히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도시의 4.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아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농촌인구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 인구의 성비는 1999년의 경우 99.2로서 남녀가 유사하나, 이러한 성비는 노인층으로 갈수록 성차가 두드러져서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에는 63.8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통계자료검색). 농촌지역의 가구당 가구원수(표 2)는 1975년의 5.3인에서 1995년에는 3.1인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구성을 보면, 농촌지역 1인 가구의 구성비율이 1975년에는 3.9%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15.6%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농촌지역의 1인 가구의 가구주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74.2%(통계청, 1995)로 1인 가구주의 고령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특성은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와 인구의 감소,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고령화 경향, 특히 1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2. 세대구성 및 가족유형

1975년 이후 농촌지역의 세대구성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2세대와 3세대 가족이 주류이었으며, 1세대 가족의 증가가 현저하다. 점차적으로 3세대 이상의 가족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4) 총가구 및 총인구, 농가구 및 농가인구중 끝자리가 0 또는 5인 연도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표 4> 농촌지역 가족의 유형별 분포, 1975~95

단위 : %

연 도	계	핵가족(%)			소 계	직계가족(%)		소 계	기타 가족
		부 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975	100.0	4.8	53.5	9.3	67.6	0.7	14.7	15.4	17.0
1985	100.0	10.1	52.9	9.5	72.5	1.4	14.2	15.6	11.9
1995	100.0	23.1	23.1	7.6	75.9	2.7	10.6	13.3	10.8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반해 1세대 가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1세대 가족의 증가는 앞서 1인 가구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볼 때, 도시화로 자녀들이 학업이나 취업으로 가족을 떠나서 생긴 가족분리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유형별 가구분포는 권태환·박영진(1993)의 가족유형분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가족으로 나누었다(표 4). 농촌가족은 핵가족이 2/3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직계가족의 비율은 별로 높지 않다. 특히 핵가족 중에서 부부 2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3. 경제수준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한 농가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985년 이후부터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1999년까지 계속해서 그 비율이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IMF 금융관리체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도에 달한 1998년의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0%이며, 1999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225,000원인데 비하여 농가소득은 1,860,250원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3% 수준이다.

4. 교육수준

농촌지역의 교육수준은 고학력의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고졸의 비율이 가장 높은 23.1%이며, 다음으로 초졸 21.2%의 순이며, 초대졸 이상의 비율은 6.1%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고졸 27.2%, 초졸 18.5%의 순이나 여성의 경우는

초졸 23.9%, 고졸 19.0% 순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5. 직업

15세 이상 농촌지역 인구의 직업분포는 농림어업직이 53.5%로 가장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는 기능원·장치기계 조작원(16.2%), 서비스판매직(11.6%),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7.0%), 사무직원(5.6%), 입법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1.5%)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남성의 47.65%에 비해 여성은 61.4%로 특히 더 높은 편이다. 또한 여성은 농림어업직 다음으로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15.1%)가 많으나 남성은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22.4%) 순으로 성차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농촌사회의 가족과 친족의 해체와 재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농촌가족원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주민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은 어떠한가?

1-1. 농촌주민의 가족주의 가치, 자녀관, 남아선호사상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1-2. 농촌주민의 가족주의 가치, 자녀관, 남아선호사상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농촌주민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1. 농촌주민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2. 농촌주민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농촌주민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태도는 어떠한가?

3-1. 농촌주민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태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3-2. 농촌주민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태도는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농촌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어떠한가?

4-1. 농촌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4-2. 농촌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농촌주민의 가족/친족 생활 의례실태와 의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5-1. 농촌주민의 가족/친족 생활 의례실태와 의례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5-2. 농촌주민의 가족/친족 생활 의례실태와 의례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1995년에 통계청에서 발간한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각 도별 읍면 이하 지역 인구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조사는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각각 1명씩 12명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도별로 배정된 조사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총 인구 중에서 읍면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12%로 10조사단위가 배정되었으며 강원도가 4%로 4조사단위, 충북이 3%로 3조사단위, 충남이 8%로 7조사단위, 전북이 4%로 4조사단위, 그리고 전남이 7%로 7조사단위, 경북이 8%로 8조사단위, 그리고 경남이 8%로 8조사단위가 선정되었다. 조사대상 지역 내에서는 조사요원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직접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도의 조사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된 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옥선화 등, 1998)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축약하여 재구성하였다. 전반적인 문항내용을 검토하고 문항의 양호도를 살피기 위하여 1999년 4월에 농촌지역 5세트,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분항을 수정한 후에 1999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33명의 대학생 조사요원이 배포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표 5〉 조사대상지역

도	인구수 (비율)	단위/12명	지 역
경기도	1,775,061(12.41)	10	이천 광주 연천 안성 포천 구리 양평 성남 안산 수원
강원도	648,147(3.54)	4	강릉 원주
충청북도	611,998(3.35)	3	충주 옥천
충청남도	1,301,185(7.12)	7	당진 홍성 서산 태안 서천 논산
전라북도	723,953(3.96)	4	남원 김제 군산
전라남도	1,282,125(7.01)	7	연수 여천 영암 목포 광주 무안
경상북도	1,406,091(7.69)	8	상주 경주 포항 의성
경상남도	1,396,131(7.64)	8	마산 함양 남해 울산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⁶⁾

특 성	급 간	빈도 (%)	특 성	급 간	빈도(%)
연 령	10대	79(13.7)	종 교	기독교	158(26.8)
	20대	105(18.2)		천주교	37(6.3)
	30대	98(17.0)		불교	199(33.7)
	40대	100(17.4)		종교 없음	188(31.9)
	50대	96(16.7)		기타	8(1.4)
	60대	98(10.0)		계	590
	계	576			
성 별	남성	290(49.4)	가족유형	핵가족	331(55.8)
	여성	297(50.6)		부계확대가족	158(26.6)
	합계	587		모계확대가족	4(0.7)
교육수준 (10대 제외)	무학	21(4.1)		노부부	59(9.9)
	초졸 이하	135(26.8)		단독가구	22(3.7)
	중졸	83(16.5)		기타	19(3.2)
	고졸	161(32.0)		계	593
	전문대이상	103(20.5)			
계	503	직업형태	농업	200(34.4)	
소득수준	100만원미만		139(23.8)	주부	85(14.6)
	150만원미만		162(27.7)	은퇴·무직	24(4.1)
	200만원미만		105(17.9)	전문·경영	13(2.2)
	250만원미만		96(16.4)	사무직	47(8.0)
	300만원 이상		83(14.0)	생산·기능·서비스	30(5.1)
	계(평균)		585(157)	자영업	48(8.2)
결혼형태	미혼	190(32.0)	학생	128(22.0)	
	초혼	370(62.4)	기타	6(1.0)	
	재혼	7(1.2)	계	581	
	사별	26(4.4)	주거형태	아파트	40(6.8)
	계	593		단독주택	467(78.8)
		상가주택·다가구주택		33(5.6)	
		임대		11(1.9)	
		연립, 빌라		29(4.9)	
		기타		13(2.2)	
		계		593	

다. 조사대상인 10대부터 60대까지 51단위 612명중에서 593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의 분석대상 593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많은 편이며, 무학을 포함한 초졸 이하가 다음으로 많아서 교육수준이 전

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응답자 가족의 소득수준은 평균 157만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⁵⁾. 또한 결혼 상태는 초혼이 가장 많으며 종교적 경향은 불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가 비슷했으며 그 다음이 기독교이다. 농촌지역 응답자들의 가족유형은 핵가족이 가

5) 〈표 6〉 참조

6) 결측값을 제외한 관계로 각 항목마다 응답자수에 차이가 있다.

장 많으며 다음은 부계확대가족이다. 여기에서 가족 유형이 기타로 분류된 것은 모계와 부계가 혼합된 형태라든가 혹은 노부부가 아니면서 40대의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 노인이 자신의 형제 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거나 사촌과 동거하는 경우, 혹은 시부모와 동거하면서 기혼 딸과 동시에 함께 사는 경우 등으로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이다.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주부라고 응답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업종사자가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의 해석은 각 연구문제 별로 전반적인 경향을 보았으며, 선행연구(옥선화 외, 1998)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파악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주제 별로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1.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

개인의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 연구를 함으로써 생활의 변화정도와 지속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는 달리 산업화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촌은 도시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⁷⁾인 특성을 더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가족 및 친족 관련 영역에서 보이는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특성이 해체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재구성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가족주의가치⁸⁾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주의가치는 전통 사회에서의 사회적 구속력에 비해 영향력이 훨씬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오늘날 통용되는 가족주의 원리

는 전통사회의 장자위주 방식과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가족주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로서 가능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주의가치의 지지정도를 파악하여 가족 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의 규범을 어느 정도로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응답자들은 가족주의가치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위: 8점-40점/평균값: 26.3점).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F=5.65 < .05/F=68.89 < .001$)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60대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20대와 40대 남성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주의가치 지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여성은 가장 높은 수준(32.3점)으로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촌 지역의 경우 가족주의가치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대와 20대의 경우 보통 수준 이하로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며, 특히 10대와 2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족주의가치 지지 수준(20.3점/20.8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젊은 층들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

7) 이 논문에서 '전통적'이라 함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 정착된 가족주의가치, 남아선호사상 및 자녀의 보상적 가치 등을 지지하는 것을 뜻한다.

8) 농촌지역 조사에서 사용한 축약형 가족주의가치 척도는 옥선화(1989)의 21개 문항의 가족주의가치 척도를 8문항으로 축약한 것으로, 이러한 척도 축약 작업을 위해 옥선화 외(1998)의 서울지역 조사 자료를 토대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의 가족주의가치 점수 범위는 8점에서 40점이다. 이 연구에서 축약형 가족주의가치, 보상적 자녀관, 비용적 자녀관, 남아선호사상 각 척도의 Cronbach의 α 값은 .79, .73, .69, .87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로는 농촌 지역의 경우도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정도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2)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보상적 자녀관과 비용적 자녀관으로 나누어 보았다. 보상적 자녀관은 자녀의 존재가 결혼생활에 의미를 제공하며, 삶의 기쁨과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자녀관이며, 비용적 자녀관은 자녀가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보는 자녀관이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응답자들은 자녀가 실제 생활 면에서 부담을 주며, 생활의 리듬을 깨는 비용적 존재로 생각(범위: 6점-30점/평균값: 16.0점)하기 보다는, 자녀를 인생과 결혼생활에 보상을 주는 존재로 생각(범위: 6점-30점/평균값: 23.2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상적 자녀관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F=5.04$, $p<.05$ / $F=12.0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자녀양육의 실제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집안의 어른이 되는 60대 여성의 경우 가장 높았다(25.6점). 그리고 20대를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자녀를 더 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여성은 실제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용적 자녀관도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F=7.08$, $p<.01$ / $F=3.39$,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및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비용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았다. 또한 10대와 50대를 제외하고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녀의 존재를 비용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그 정도는 보통수준 이하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농촌남성들이 자녀양육에 경제적인 부담을 좀더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자녀를 비용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3) 남아선호사상

전통적 가족에서는 자녀를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아보다는 남아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현대 가족의 두드러진 변화는 소인수의 자녀를 갖는 경향이며, 교육이나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응답자들의 남아선호사상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범위: 5점-25점/평균값: 13.1점). 이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52.11$, $p<.001$)가 있어,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아선호를 지지하는 수준이 더 낮았으며, 50대와 60대는 보통수준 이상의 남아선호사상을 보였다. 반면 남아선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그러한 대우가 부담이 될 수 있는 10대는 성별 차이 없이 남아선호사상 수준이 가장 낮았다.

4) 논의

농촌 주민의 가족주의가치 지지정도는 보통수준 이상이며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등, 농촌가족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이 도시만큼 변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과 연령에 따라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지정도는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보다 덜 전통적인 가족 및 친족관련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을 지지하는 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가치

〈표 7〉 성(性)과 연령에 따른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의 평균값

가치관	연령	평균(빈도)		
		남성	여성	
가족주의가치	10대	22.86(44)	20.32(44)	
	20대	22.62(52)	20.78(51)	
	30대	27.18(45)	24.72(50)	
	40대	27.13(46)	26.94(50)	
	50대	28.57(49)	29.49(45)	
	60대	32.18(50)	32.29(52)	
자녀관	보상적 자녀관	10대	21.32(44)	22.80(44)
		20대	21.88(52)	21.73(51)
		30대	22.58(45)	22.86(50)
		40대	23.37(46)	23.72(50)
		50대	23.14(49)	24.31(45)
		60대	24.66(50)	25.63(52)
	비용적 자녀관	10대	16.93(44)	17.02(44)
		20대	16.06(52)	14.02(51)
		30대	17.71(45)	15.62(50)
		40대	16.87(46)	15.66(50)
		50대	15.57(49)	16.20(45)
		60대	15.66(50)	15.33(52)
남아선호사상	10대	9.55(44)	8.14(44)	
	20대	11.38(52)	9.04(51)	
	30대	12.53(45)	12.06(50)	
	40대	13.15(46)	13.96(50)	
	50대	15.27(49)	15.47(45)	
	60대	17.38(50)	18.13(52)	

관이 해체되는 속도가 늦은 편이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가치관이 재구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농촌 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에서는 도시와 큰 차이 없이 가족 및 친족에 대한 가치관이 탈 전통성의 양상으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인식

부계직계가족을 이상형으로 하였던 우리의 전통 가족은 부자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에 있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가족형태는 핵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핵가족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김주숙,

1987; 변화순 외, 1993)들은 한국농촌가족이 여전히 가장 중심적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고정된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농촌가족의 현재적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농촌가족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농촌가족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상태와 변화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들의 상대적인 위상 및 각 관계별로 변화정도에 대한 지각과 구체적인 변화상, 권력, 역할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1)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대적 위상

'가족관계중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10명중 8-9명의 응답자가 '부부관계'라고 응답하여 부모자녀관계보다는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의식이 농촌에서도 강하게 나타났다. 부부관계이외의 관계 중에서는 부녀, 모자, 모녀관계에 비해 부자관계가 중요하다는 의식이 나타나 부계적 의식을 관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에 대한 의식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공히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0대와 40대가 특히 부부관계를 중요시하였으며, 60대와 10대는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50대와 6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자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월등히 많았다.

2) 부부관계

농촌지역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부부관계가 10년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4점 척도, $M=3.32$, $SD=0.68$). 이러한 부부관계의 변화 정도에 대한 지각에 있어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연령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62$, $P<.01$). 40대와 50대($M=3.45$, 3.46)가 부부

관계가 가장 많이 변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10대(M=3.12)는 상대적으로 부부관계의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부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70% 이상이 부인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부인의 의견이 과거보다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농촌 여성들의 농업 노동에의 참여가 보편적 현상인 것에 비해 농촌지역 응답자들은 부인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증가는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농촌여성들의 부양자 역할은 이미 7-80년대에 이루어진 변화(이효재·김주숙, 1977; 이효재·조형, 1976)이므로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질문하였을 때 변화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증가를 인식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각각 56.6%, 40.2%). 이는 다른 연구에서 농촌남성들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부부 공유시간과 대화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지적도 4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구체적인 변화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남녀간에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남편의 자녀양육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t=9.81, P<.05$). 반면, 연령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영역에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10대, 20대, 30대가 남편의 가사노동증가를 크게 인식한 반면, 40대, 50대, 60대는 변화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t=17.82, P<.01$).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부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40대부터 60대까지 부인의 부양자역할의 증가를 높이 지각하고 있었다.

부부간 권력관계를 묻는 5점 척도 질문에 대한 평균은 2.39(SD=1.00)로 남편의 권력이 크다는 인식이 높다. 즉, 우리 나라의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의 권력이 부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부인의 영향력과 의견이 존중받게 되었다는 지적이 70%를 넘고 있는 것과

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는 과거에 비해 부인의 영향력과 의견은 존중되고 있으나, 아직도 남편의 권력이 부인의 그것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의 권력에 대한 지각에 있어 성별, 연령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남편에게 보다 많은 권력이 있다는 인식에 있어서 농촌지역 응답자들은 남녀간, 연령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과 부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편의 경우는 생계책임자(32.1%)와 집안통솔자(29.7%)로서의 역할을, 부인의 경우는 어머니역할(43.2%)과 주부(25.2%)로서의 역할 및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역할(22.3%)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정적인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경우에 중요도가 낮게 지적되었다(각각 4.4%, 5.3%). 이러한 결과는 앞에 제시된 '가족관계 중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촌 주민들의 부부역할에 대한 기대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역할 분리에 대한 기대는 제도적 결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대한 의식에 있어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촌주민들의 경우 성별에 따르는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 남녀간에 차이가 없으며 유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연령에 따라서는 남편과 부인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t=69.9, P<.001$). 남편의 생계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집안통솔자로서의 역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아내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20대가,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10대가, 그리고 애정적인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20대와 30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전통성과 근대성이 뚜렷이 대비되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인역할에 있어서도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t=73.08, P<.001$). 부인

의 생계책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5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50대와 6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안살림을 잘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10대에서는 매우 낮았으나(8%), 60대에서는 과반수 정도가 이 항목을 지지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상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10대의 경우 10명중 6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3) 부모자녀관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가 얼마나 변화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4점척도 질문에 대한 평균은 3.15(SD=.66)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가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정도에 대한 지각은 성 및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농촌지역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모자녀관계가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관계의 구체적인 변화상에 대한 지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지적한 부분은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주게 되었다'는 것이며 10명중 8명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주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중 2명에 불과했다. 한편 부모자녀간에 보다 가까워지고 대화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10명중 5-6명에 달하고 있어 부모자녀관계가 보다 친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자녀관계의 구체적인 변화상에 대한 지각에서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주게 되었다는 인식은 10대와 20대는 낮았으나 30대 이후 집단에서는 20-30%가 동의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혼자녀와 미혼자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과거보다 가까워졌다

는 인식도 10대, 30대 및 40대의 경우 10명중 6-7명이 동의하였으나 50대와 60대는 10명중 1-2명 정도만이 동의하여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보다 가까워졌다는 인식에서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농촌의 30, 40대 부모들의 실제 생활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0, 40대 부모들과 그의 자녀들(10대)이 추구하는 부모자녀관계는,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성인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50대와 60대의 농촌부모들과는 달리 애정적이고 친밀감을 추구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부모자녀관계일 가능성을 이 결과는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변화순등(199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밝혀졌는데 젊은 부모일수록 자녀문제에 관하여 부부간에 더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간 권력관계를 묻는 5점 척도 질문⁹⁾에 대한 평균은 2.27(SD=.99)로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편이다. 부모자녀간 권력관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에게 더 권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논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지난 10년 간 상당히 변화하였다는 인식은 농촌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부인과 자녀의 영향력이 커지고 부인과 자녀가 보다 존중받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부부간, 부모자녀간 권력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편과 부모의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부부간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족관계 중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추상적인 인식에는 대부분 합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편과 부인의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는 자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9) 1점: 상당한 권한이 부모에게 있다. 3점: 부모와 자녀가 평등하다. 5점: 상당한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

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의 경우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별에 따르는 의식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변화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나 현 가족관계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남녀가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령에 따르는 차이는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변화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서 탈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각된 변화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패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이혼과 재혼에 관한 태도

이혼을 및 재혼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 및 재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완화되면서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과, 새로운 출발로서의 재혼을 점차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농촌주민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전반적 허용도를 살펴보고,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탐색해 보았다.

1) 이혼에 대한 허용도

먼저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의 문항으로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허용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약 56%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주민도 불행한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혼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83%)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비뚤어지기 쉽다고 생각하며 약 45%의 응답자가 자신의 자녀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질문이 구체화될수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약 57%의 응답자가 이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 해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좋은 부모라면 배우자로서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이러한 시각은 실제 이혼한 부부들이 자녀문제를 이혼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각(한경혜, 1993)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혼가족은 문제가족이고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시각은 또한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표 8〉 이혼에 대한 허용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경제적 및 다른 여건이 가능하면 독신으로 살 수 있다.	18.9(112)	25.0(148)	11.5(68)	34.0(201)	10.6(63)
2. 결혼은 적령기에 해야 한다.	3.5(21)	16.9(100)	12.8(76)	46.6(276)	20.1(119)
3.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	1.0(6)	2.4(14)	9.6(57)	55.0(326)	32.0(190)
4.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8.1(48)	19.2(114)	16.9(100)	40.0(237)	15.9(94)
5.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비뚤어지기 쉽다.	0.3(2)	5.1(30)	11.8(70)	52.1(309)	30.7(182)
6. 만약 이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에 해야한다.	9.6(57)	19.8(117)	13.7(81)	39.6(234)	17.3(102)
7. 부모가 이혼을 한 사람은 자신들도 이혼하기 쉽다.	11.6(69)	24.3(144)	23.3(138)	33.1(196)	7.8(46)
8. 내 아들/딸이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대하겠다.	10.5(62)	27.0(160)	17.5(104)	30.4(180)	14.7(87)
9. 좋은 부모라면 배우자로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6.3(37)	17.7(105)	19.6(116)	39.5(234)	16.9(100)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진술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한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혼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20대가 가장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부정적 영향은 6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특히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혼에 대한 허용도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2) 재혼관

본 연구에서는 재혼에 있어서의 자녀문제, 재혼의 목적, 그리고 재혼에 대한 주변의 인식등 다양한 문항을 통하여 재혼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항목에 대하여 약 64%의 응답자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결혼을 두 사람의 애정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고 하겠으며 이는 앞

에서 이혼에 대한 허용도 분석에서 관찰된 경향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응답자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므로 남자가 혼자된 경우 재혼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이에 동의한 반면, 여성이 같은 이유로 재혼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다. 재혼에 대한 이중규범과 함께,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자녀 때문에 재혼하면 안된다는 인식은 상당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재혼을 한 사람은 주위사람들로부터 보통사람과는 다른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약 41%의 응답자들이 재혼가족의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 재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재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당 정도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4항목, 연령차를 보이

<표 9> 상황에 따른 재혼태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있으면서 혼자된 남자의 경우 그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혼을 해야 한다.	57(34)	201(119)	207(123)	435(258)	99(59)
2. 자녀가 있으면서 혼자된 여자의 경우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혼을 해야 한다.	105(62)	317(187)	246(145)	293(173)	39(23)
3. 혼자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혼을 할 수 있다.	78(46)	243(144)	287(170)	350(207)	42(25)
4. 재혼을 한 사람은 주위사람들로부터 보통사람과는 다른 시선을 받는다.	46(27)	189(112)	214(127)	481(285)	71(42)
5. 혼자된 사람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89(53)	258(153)	354(210)	282(167)	17(10)
6. 재혼가족의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	61(36)	261(154)	267(158)	343(203)	68(40)
7. 혼자된 남자는 자녀를 생각한다면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	125(74)	491(291)	187(111)	167(99)	30(18)
8. 혼자된 여자는 자녀를 생각한다면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	110(65)	424(251)	203(120)	209(124)	54(32)
9. 혼자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자녀가 있어도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	35(21)	108(64)	223(132)	535(317)	98(58)
10. 재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다음에 해야 한다.	81(48)	320(189)	176(104)	321(190)	102(60)
11. 재혼가족은 또 깨어지기 쉽다.	120(71)	310(184)	273(162)	251(149)	46(27)

는 항목은 9항목이었다. 이혼관과 마찬가지로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보다는 연령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는 결과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관찰되는 연령차는 주로 60대와 그 외의 연령층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60대 응답자들은 '재혼한 사람들은 주위사람들로부터 보통사람과는 다른 시선을 받는다, 재혼가족의 아이들은 문제가 있다, 재혼가족은 또 깨어지기 쉽다, 재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다음에 해야 한다, 혼자된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생각한다면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아서, 농촌지역의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 매우 보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대는 혼자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자녀가 있어도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대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여서, 개인 중심의 애정을 중시하는 세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혼에 대한 태도에서 성에 따른 차이는 자녀가 있으면서 혼자된 여자의 경우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혼을 해야한다는 항목,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혼을 할 수 있다, 혼자된 여자는 자녀를 생각한다면 재혼해서는 안 된다, 혼자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자녀가 있어도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4항목에서 나타났다. 4항목에 있어서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재혼에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4) 논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가 유지, 지속되고 있는 측면과 변화하는 측면이 혼재하며 연령이나 성에 따라 가치관 변화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전반적으로 성별 집단 차 보다 많이 나타났다. 60대 응답자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10대, 20대 응답자들이 가장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의 변화방향을 시사하는 결과라

고 하겠으며, 이러한 결과는 도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변화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이혼이 불행한 결혼에 대한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문을 구체화하였을 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에 대하여 허용도가 낮고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재혼에 대한 태도 역시 복잡적이어서, 농촌지역 응답자들은 애정을 기초로 하는 재혼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재혼가족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향도 상당히 높았으며, 이러한 의식의 반영으로 재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다음에 재혼을 해야한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들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주목할 만한 경향은 부부간의 애정이 이혼과 재혼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상당정도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가족관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관찰과 일치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4. 사회적 관계망¹⁰⁾ 특성

농촌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10)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상 기혼자이며 핵가족 내에서 사는 254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조사 대상자들이 제시한 사회적 관계들은 다음과 같이 통합 분류되었다. 친족은 양가부모(친부, 친모, 시모, 장인, 장모),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기혼아들, 기혼딸, 며느리),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여자형제, 남자형제, 올케), 인척(인척, 시누이, 동서, 처남, 매형, 시동생, 시아주버니), 기타 친족(부계쪽 삼촌, 모계쪽 삼촌, 양가사촌, 양가오촌 이상 등)으로 통합되었다. 비친족은 학연(초등학교친구, 중학교친구, 고등학교친구, 대학교친구, 학교선호배, 동창), 이웃, 친지(동네 친구, 동향친구, 그냥친구), 공적 관계(직장동료, 종교기관친구), 기타(선생님, 기타)로 통합되었다.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분석한 뒤 가장 가깝다고 지적인 사회적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 연령에 따라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접촉 빈도는 어떠한지를 살펴 보았다.

1) 사회적 관계의 중요도

농촌지역 응답들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양가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친지, 이웃, 학연, 기타 친척, 인척, 공적 관계,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족과 비친족으로 나누어 보면, 친족이 64.2%, 비친족이 35.8%로 친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응답자들이 두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친지,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기타 친척, 인척, 학연, 양가부모, 공적 관계, 기타로 나타났다. 이를 친족과 비친족으로 나누어 보면, 친족이 48.0%, 비친족이 52.0%로 비친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첫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두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합하여 보면,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친지, 이웃,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양가부모, 학연, 기타 친척, 인척, 공적 관계,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족과 비친족으로 나누어 보면, 친족이 56.1%, 비친족이 43.9%로서 친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농촌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여전히 친족이며, 전체적인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 중에서도 친족이 비친족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는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는 연구 조사 대상자중 사회적 관계망 부분의 분석 대상이 된 농촌 주민은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점 때문이며, 노령화된 농촌 주민들이 성인 자녀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친족 중에서는 친지 다음으로 이웃의 비율이 높아 농촌 주민에게 이웃이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나타났다.

2)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

농촌지역 응답자들이 평소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대답한 한 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성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구성에서의 차이를 보았다. 20대와 30대 남성의 경우, 친지가 사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와 배우자, 양가부모, 학연, 공적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 양가 부모가 과반수나 되었고,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와 배우자, 인척, 친지가 각각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는 학연과 이웃이 각각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친족과 비친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은 47.8%와 52.2%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77.1%와 22.9%로 친족이 비친족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0대 남성의 경우, 학연이 약 삼분의 일 정도였고, 그 다음이 이웃, 양가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친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여성의 경우를 보면, 양가부모가 삼분의 일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지, 형제자매와 배우자, 학연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과 비친족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32.1%와 67.9%로 비친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61.3%와 38.7%로 친족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기혼자녀와 배우자가 삼분의 일보다 약간 적은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형제자매와 배우자, 친지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로는 기타 친척, 양가부모, 학연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를 보면, 기혼자녀와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와 배우자, 이웃이 같은 동등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뒤이어서 인척과 친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과 비친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62.5%와 37.5%로 친족이 훨씬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두드러져 80.0%와 20.0%로 친족이 비친족보다 네 배 이상 많았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나타난 농촌지역 응답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남성보다 여성에

게 있어 친족이 비친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에게 있어 친족이 중요한 사회적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친족, 비친족의 구성을 보면, 남성은 52.8%와 47.2%, 여성은 74.8%와 2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31$, $p<.001$) 둘째, 남녀 모두 40대가 20-30대나 50대 이후보다 비친족과의 관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연령에 따른 친족, 비친족의 구성을 보면, 20-30대는 65.5%와 34.5%, 40대는 47.5%와 52.5%, 50대와 그 이상은 70.8%와 2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84$, $p<.001$). 이를 통하여, 농촌 지역의 경우 40대에 남녀 모두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성에게 있어 20대와 30대에는 친지가, 40대에는 학연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였고, 50대 이후가 되어서야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양가 부모가, 50대 이후에는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근친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관계망과 접촉빈도

접촉빈도는 전화와 직접 만남의 두 가지 형태로 보고, 가장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종류에 따른 접촉 빈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화 접촉의 경우, 양가부모 그리고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는 사분의 삼정도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는 절반이상이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접촉을 한다고 응답하여 근친과의 전화접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과의 전화접촉에 있어서는 이웃 그리고 친지와는 사분의 삼정도가, 학연과는 절반 이상이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전화접촉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 전체를 볼 때에도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전화 접촉을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 비교적 빈번한 전화 접촉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촌 주민들은 전화라는 통신 수단을 통하여 서로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

고 있다 할 수 있다.

직접 만남은 전화의 경우에 비하여 접촉 빈도가 훨씬 줄어든다. 양가부모,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두 번 미만이 삼분의 이 이상인 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은 삼분의 일미만으로 나타나 근친과의 직접 만남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친족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이웃과는 삼분의 이 이상이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으며, 친지와는 삼분의 이 정도가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만나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전화 접촉은 친족과 비친족에 있어 유의한 차이 없이 모두 비교적 자주 이루어지는 반면, 직접 접촉은 비친족과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이상으로 본 농촌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친족이 비친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로 친족을 들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전체 구성원들 중에서도 친족이 비친족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친족과의 유대에 있어서는 근친지향적이나 원친과의 관계도 비교적 중시되고 있었으며, 인척보다는 혈족 지향적이었다.

비친족과의 유대에 있어서는 친지 다음으로 이웃을 중요한 관계로 제시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있어 이웃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친족관계를 더욱 가깝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50대 이상의 비교적 나이든 세대에서는 여전히 친족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40대의 장년층에서는 친족 이외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민들은 직접 만나기 어려울 경우 전화라는 통신 수단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친족과 비친족 사이에 차이가 없다. 한편 직접적 만남은 친족보다는 비친족 사이에 보다 더 자주 행해지는데, 직접적 만남의 경우에는 친족과 비교하여 비친족과의 거주 거리가 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친족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 있어 거주 거리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 비친족에 있어서는 거주 거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농촌 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함에 있어 조심스럽긴 하나, 다른 종류의 기능과 비교하여 정서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결과(한경혜, 1996),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이웃보다 멀리 떨어진 자녀에 의존하는 경향(최혜경, 1997), 기혼자녀와의 정서적 관계가 긴밀하다(변화순, 1993) 등은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농촌 가족의 해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최양부·오내원, 1992; 김홍주, 1995). 또한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사회 의 인간관계의 붕괴, 연대성의 상실, 지역사회로서의 기능 상실로 인한 붕괴, 소멸 등이 경고되어 왔다(윤근섭, 1993).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관계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는 농촌 주민들에게 있어 거주거리에 상관없이 여전히 긴밀히 유지되고 있고, 이웃과 친지와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농촌가족의 해체 현상, 지역사회의 붕괴 현상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5. 가정생활의례의 실태 및 태도

우리의 전통사회는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가례 즉 관혼상제례의 규범이 가족 및 친족생활의 주요한 준거틀이었다. 전통사회의 특성이 도시보다 더 강하게 남아있는 농촌의 경우 오늘날 어떠한 방식으로 관혼상제 등 각종 의례를 행하고, 이러한 의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를 조사하였다¹¹⁾.

1) 가정/친족생활의례의 관행과 태도의 변화

(1) 출산의례

출산의례는 산모의 미역국 섭취, 백일잔치, 돌잡

이 순으로 행하였고 이 세 가지는 농촌지역 응답자의 6할 이상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삼칠일간 신생아방 출입삼가기, 삼신에게 빌기, 외갓집 첫 나들이에 붉은 고추 넣어 가기 등과 같은 민간 신앙적 요소가 강한 의례들도 어느 정도 전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고, 불교신자인 경우 삼신에게 빌기와 같은 민간 신앙적 의례를 많이 행하였고, 백일잔치의 경우 30대와 40대들이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 유지되는 의례임을 알 수 있다.

(2) 생일의례

생일의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미역국을 먹는 것이고, 다음으로 케익과 선물, 생일떡 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일떡보다 케익을 더 많이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도 전체의 50% 정도이므로 생일의례의 경우 농촌에서도 서구적 형태로 많이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일의례의 서구화는 연령이 젊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3) 성인기 의례

'어른'이 되는 시점을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질문을 통해 성인기 의례에 대해 조사하였다. 남자의 경우 '군대제대', 여자의 경우 '결혼'을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응답한 내용은 남자의 경우 결혼, 여자의 경우 만 20세로 나타났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혼이 1, 2위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농촌지역 응답자의 경우 어른이 되는 시기를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는 시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여성의 성인기 진입

11) 농촌의 가정생활의례 변화를 알아보기로 출산의례, 혼례, 상례, 제례는 의례의 경험이 있었던 기혼자들만 대상으로 파악하였고, 생일의례, 성인기진입, 의례에 대한 태도 부분은 미혼자의 응답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의례의 특성상 종교와 소득수준 변인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조사결과 통계표는 <부록 1>과 <부록 2>로 제시하였다.

을 결혼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고졸 연령, 만 20세, 대졸 등 보다 다양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다. 전통사회에서의 관례가 사라진 현재 도시나 농촌이나 한 개인이 '어른'이 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나 의례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오늘날의 상황에 맞는 성인기의례의 정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4) 혼례

결혼식을 올린 장소는 '집'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시에 있는 예식장, 읍·면에 있는 예식장, 읍·면의 회관이나 종교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50대나 60대, 혹은 소득수준이 낮거나 초졸인 집단, 불교 신자인 경우 집에서 혼례를 치른 경우가 많았다.

결혼과정 중 수행한 의례는 청첩장, 함잡이, 폐백, 피로연, 신혼여행 등이 많이 언급되었는데, 폐백을 올린 경우가 80%가 넘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례식은 전통식과 서구식이 절충되어 나타났는데, 폐백과 함잡이 같은 전통 의례도 행하면서 약혼식, 청첩장, 피로연, 신혼여행 등의 서구적 의례도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례에서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비용이 많이 드는 신혼여행, 야외촬영과 같은 의례들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장례

장례의 경우 상주의 복장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경향이 강해서 남자의 경우 삼베 상복, 굴건, 삼베 완장, 지팡이가 여성의 경우, 흰색 소복과 흰색 머리리본이 가장 보편적인 상복으로 나타났다. 상주의 복장은 관련변수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초졸이고, 불교나 무교 집단에서 전통적인 상복을 더 많이 입었다. 기독교 신자의 경우 검은색 양복을 많이 입었다.

묘지의 희망 형태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가족묘지(선산)였고, 다음으로 공원묘지였으며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산에 뿌리는 것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응답하였다. 불교신자나 무교인 사람들

이 가족묘지를, 기독교 신자들은 종교기관 묘지를 선호하였다.

(6) 제례

제사의 실시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통 유교식과 간소한 유교식을 합쳐서 모두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전통적인 유교적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중이 주체가 되는 묘사는 48.1%가 행하였고, 차례와 기제사는 둘 다 80%를 상회하였다.

기제사는 4대 봉사와 3대 봉사가 각각 25% 수준이므로, 합치면 과반수가 되었다. 기제사 참가자의 범위를 보면 4촌 이내의 친족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제사 복장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양복이나 평상복을 단정하게 입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사 방식은 전통적인 유교식 제사를 지내지만 의상은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부분 제사용 제기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였다. 문중행사 참여 정도는 종친회, 묘사, 집안 계모임에 대한 참석이 각각 45.7%, 46.9%로 활발하였으며 반면 문중행사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7.9%로 나타났다.

제례의 경우 연령과 종교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50대나 60대 등 고령인 경우에 그 이하 집단보다 전통적인 성향이 더 강해서 기제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4대 봉사와 3대 봉사를 하며, 기제사 때 한복 정장을 입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문중행사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집단보다 50, 60대 집단의 참여도가 높았다. 기독교 신자들이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고, 기독교식 추도식을 드리거나 안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불교 신자나 무교인 사람들은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비율이 높고, 묘제·기제사·차례를 지내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불교의 경우 봉사 범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4대 봉사를 많이 행하였다. 문중행사 참여에 있어서도 불교 신자나 무교인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보다 종친회나 묘사 참여도가 높았다.

제례의 실태와 함께 농촌지역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제사제도에 대한 전망도 알아 보았다. 우선 제사 방식에 있어 아들이 없을 경우에 제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응답해서, 제사를 위해서 아들을 입양해 오던 유교적 규범이 농촌가족에서도 많이 쇠퇴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제사 제도의 전망에 있어서는 제사 제도가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계속 장남이 맡을 것이라거나 종교기관이 대행할 것이라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제사 제도의 전망에 대해서는 불교 신자들이 가장 전통적이어서 계속 장남이 맡아 지낸다거나 종교기관 또는 자녀들이 나누어 맡아 지낼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였고, 기독교 신자나 무교인 사람들은 제사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였다.

농촌지역 응답자들이 현재 의례를 실시하는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의례들을 다수 행하고 있지만 미래 전망이나 의식면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유교적 의례의 지속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7) 중요시하는 의례

가장 중요시하는 의례를 조사한 결과 결혼식이 1순위, 장례식이 2순위로 지적되었고, 그밖에 돌잔치, 환갑잡치, 기제사 등이 언급되었다. 관혼상제의 통과 의례와 관련된 결혼식, 장례식, 기제사 등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출생과 장수를 기리는 돌잔치, 환갑 잔치 등을 중요한 의례로 인식하고 있다.

2) 논의

이상으로 농촌 가족의 가정생활의례의 실태와 의식을 살펴 보았다. 농촌 가족의 가정생활의례는 출산의례, 혼례, 장례, 제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시 형식면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로 지속되는 의례와 산업화와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의례들이 있다. 출산의례에서의 산모의 미역국 섭취·돌잡이·삼신에게 빌기와 생일의례에서의 미역국, 혼례에서의 폐백·함잡이, 장례에서의 상주의 복장, 제례에서의 유교식 제사수행 등 전통적인 형태의 의례들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구식이 가미된 형태로는 생일의례에서의 케익이나 선물, 혼례에서

의 약혼식·청첩장·피로연·신혼여행, 장례에서의 남성 상주의 검은색 양복 착용 등을 들 수 있다.

생일의례와 혼례에서는 서구적 의례의 도입 뿐 아니라 자본주의와 상업화의 영향이 많이 작용하였는데 생일선물이나 결혼식에서의 신혼여행·야외촬영 등은 전에 없던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경우이다. 이러한 의례들은 소득이나 계층에 따라 차이가 심해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비용을 더 들이며 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농촌 가족에게서도 의례의 상업화와 사회화 현상에 따른 빈부 차이가 드러나는 측면을 보여 준다.

의례의 실태가 전통적인 형태와 절충형으로 나타났다면 의식 면에서는 근대적인 경향을 많이 보였다. 즉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들이지 않고 종교기관에 대행시키거나 아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제사가 앞으로 차차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높았다. 적어도 제사를 잘 지내는 것 자체가 신분과 시이자 지위 상승의 기본전략이었던(김혜숙 외, 1999: 7) 전통 관념은 약화되어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최준식, 1996: 85). 그러나 이는 의식 수준이고 현재 많은 농촌 가족들이 전통적인 의례들을 거의 다 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의례 경향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농촌 연구는 농촌사회의 기본 구조인 가족과 친족의 해체와 재구성 양상을 파악하여 현재 한국 농촌의 모습을 농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과 친족에 관한 가치관과 가족관계, 이혼 재혼 등에 태도, 사회적 관계망과 의례를 통하여 농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전반적인 가족/친족 해체와 재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용되고 있으며 성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 지역 연구(육선화 등, 1998)를 토대로 농촌실정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국 농촌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농촌주민 593

명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농촌주민의 가족/친족 및 친족구조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성별보다는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농촌주민은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편이며, 보상적 자녀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60대에서 보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60대는 자녀에 대한 보상적 가치가 가장 높으며, 남아선호사상도 높다. 또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라는 인식이 가장 낮으며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생활의례에 있어서도 가장 전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농촌지역의 보수성은 부분적으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60대 연령층의 가족생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농촌주민들의 전통성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촌주민은 가족/친족관계 중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사고가 지배적일 것으로 보이는 농촌사회에서도 부부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족관계 중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역할관계를 분석하면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배우자로서보다는 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부부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의 핵가족에서 동반자적이고 우애적인 부부관계를 중요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부부관계를 중요시하는 외형은 같으나 부부관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달라서 농촌가족의 경우 내면적으로는 부모-자녀관계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과 재혼 관련 문항 중 자녀와 관련된 상황이 설정되었을 때 보다 신중한 응답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촌주민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이혼이나 재혼을 남녀간의 문제로 접근할 때는 전반적으로 허용

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녀와 관련된 부모역할로 파악할 때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이혼/재혼에 대하여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등 이중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안정성과 자녀의 복지가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시되는 의식이 아직도 뿌리깊으며 가족 관련 규범 및 성규범에서의 이중규범이 농촌주민들에게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마찬가지로(옥선화 등, 1998) 부부간의 애정이 이혼, 재혼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향을 본다면, 보수적인 가족의식이 유지되면서도 동시에 부부 중심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촌에서는 강한 혈족 지향성, 특히 그 중에서도 강한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편으로는 가족관계 중 부모자녀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기혼자녀의 부부관계에 대한 부모들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농촌주민들 사이에 근친지향적이긴 하나 원친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게 나타난 사실은 가족주의가치가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결과와 문중 의례에의 참여도가 높은 결과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 보다 변화된 의식을 가진 현재의 젊은 세대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기에는 보다 더 근친 중심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농촌의 중장년층 남성들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 보다 친지, 학연 등 비친족과의 관계가 부모관계보다 친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그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하면서도 부모와의 대화나 애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보수적 가정에서의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주민들 사이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와도 부합된다.

다섯째, 가정생활의례는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기독교집단을 중심으로 서구화와 사회화 현상이 일

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 전반의 산업화과정의 변화 추세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 차이는 곧 의례변화 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의 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혼례의 사회화 정도의 증가와 종교기관의 의례대행에 대한 전망 그리고 미래의 제사에 대한 전망에서 나타났듯이(문옥표, 1999) 또한 의례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가늠해 볼 때, 부분적으로는 상업주의의 개입에 따라 물질의 풍요가 일부 전통적인 가정의례의 복원을 초래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50대와 60대 연령층이 가정의례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물러나게 되면, 가정의례는 급속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업주의의 개입에 따라 의례의 사회화가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이고, 전통적인 가정의례의 전승보다는 산업화나 사회화에 의하여 변형된 의례 또는 서구식 의례로 대체되어 가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한국의 농촌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낮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변화는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의 농촌은 급격한 황폐화나 단절보다는 어느 정도 전통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나 도시화에서 비롯된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을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주민들은 농촌의 강한 유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국의 농촌이 보여준 변화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젊은 층이 주도하게 될 농촌의 모습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큰 파급효과를 지닌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예측을 한다.

한편, 농촌의 여성들이 과도한 노동과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식이나 생활은 남성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농촌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지녀야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 농촌에서의 삶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

과는 현재 농촌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배우자 선택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농촌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친족의 해체현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농촌에서 생활하고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가족과 친족생활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촌가족과 친족의 해체와 재구성 양상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과정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성차 보다는 연령차이가 있는 사회, 그리고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촌, 혈족관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조금씩 그 표현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타진하는 변화가 보이는 사회가 현재의 농촌인 셈이다. 결국 한국의 농촌은 현재 과도기에 처해 있으며 젊은 연령층이 농촌의 주인으로 나서게 될 시점에서 농촌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촌이 여성화되고 고령화되면서 농촌은 황폐화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나름대로 적절한 적응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사회가 갖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과 이중적인 태도 등이 전반적으로 지적될 때 우리의 농촌은 또 다른 탈바꿈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는 학문적인 노력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헌경, 이효재, 이만갑, 이해영(1963). 한국농촌 가족의 연구. 서울대 출판부
- 2) 권태환(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2, 39-56.
- 3) 김주숙(1980). 한국농촌여성연구-5대 부락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카톨릭 여성회.
- 4) 김혜숙·김은희·김향원·유철인·장현섭(1999). 한국 가족/친족 연구의 쟁점: 도시중산층과 계주도의 가족/친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1, 1, 1-22.
- 5) 김홍주(1992). 현대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 가족문제. 농촌사회, 2, 85-143.
- 6) 김홍주(1995a). 한국 농민가족의 변화에 관한 연구-농민의 가족전략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7, 272-296.
- 7) 김홍주(1995b). 한국농민의 변화양상과 가족문제. 농촌사회, 5, 227-259.
- 8) 농림부. 각년도. 농가경제통계
- 9) 농림부. 농가경제주요지표. www. maf.co.kr/agiinfo/satistics_02_02.asp. 2000.8.22.
- 10) 문옥표(1999). 중족마을의 전통과 변화. 서울: 백산서당.
- 11) 백양희·최외선(1996). 농촌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4, 1, 33-47.
- 12) 변화순(1993). 한국 농촌가족의 구조와 기능 변화. 농촌사회, 3, 127-155.
- 13) 변화순·원영애·최은영(1993). 농촌 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4) 서광희·조병은(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 1, 97-121.
- 15) 서병숙·김유정(1993) 농촌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1, 80-92
- 16) 옥선화(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3, 161-170.
- 17)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 11, 157-182.
- 18) 윤근섭(1993).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전북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농촌사회, 3, 9-37.
- 19) 윤복자·강혜원·조길수·손경희·곽동경·지순·김경희(1990) 농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4, 65-86
- 20) 이영미·김주희(1991). 한국농촌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 3, 247-261.
- 21) 이효재·김주숙(1977). 농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이대논총, 30.
- 22) 이효재·조형(1976). 여성경제활동 및 취업에 관한 연구, 1960-1970년의 추이. 이대논총, 27.
- 23) 최양부·오내원(1992). 농촌가족의 해체와 소멸: 충남 부여군 S마을 사례, 가족학논집, 4, 175-193
- 24) 최준식(1996). 조상숭배가 전통사회에서 갖는 두 세가지 의미에 대해. 국제한국학회지, 1, 67-87.
- 25) 최혜경(1997). 노인기의 가족 및 사회관계, 농촌생활과학, 18 3, 36-40
- 26)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27) 통계청. 행정구역/성/연령/종교별 총조사인구. www.nso.go.kr/cgi-bin/sws_999.cgi. 2000/8.24
- 28) 한경혜(1993). 이혼과 부부문제에의 이론적 고찰.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pp57-78. 서울: 도서출판 하우
- 29) 한경혜(1996). 농촌 노인의 세대관계-단독가구 노인을 중심으로-, 1996학년도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 30) 한경혜·장미나(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 1.

<부록 1> 농촌 가족의 가정생활의례의 실태

의례의 종류	실시 정도(%)	연령차(χ^2)	소득수준차(χ^2)	종교차(χ^2)
출산의례	미역국(91.3), 백일잔치(69.5), 돌잡이(64.8), 삼칠일 금기(27.3), 기타 민간신앙적 의례	백일잔치*** 삼신에게 빌기* 의갓집 첫나들이에 붉은 고추 넣어가기*	삼신에게 빌기** 돌잡이**	삼신에게 빌기*** 삼칠일 금기**
생일의례	미역국(91.6), 케익(52.8), 선물(46.5), 생일떡(29.0)	미역국*, 케익* 선물***, 생일떡***	케익**, 선물** 생일떡***	ns
성인기 의례 (어른이 되는 시점)	남자: 군대제대(38.1), 결혼(17.9), 만20세(15.3) 여자: 결혼(31.9), 만20세(19.7), 대졸(14.0)	남자의 성인기시점** 여자의 성인기시점***	남자의 성인기 시점* 여자의 성인기 시점*	ns
결혼식 의례	혼례장소: 집(33.7), 도시의 예식장(26.3), 읍·면의 예식장(24.3), 읍·면의 종교기관(13.4), 폐백(84.4), 피로연(68.), 청첩장(60.5), 합잡이(49.6), 신혼여행(43.7), 약혼식(27.3), 답례품(24.8), 야외촬영(12.2)	혼례장소* 약혼식*** 청첩장*** 합잡이*** 야외촬영*** 피로연*** 신혼여행***	혼례장소** 청첩장*** 합잡이*** 피로연** 신혼여행**	혼례장소*** 합잡이* 폐백*
장례 의례	남자 상주 복장: 삼배상복(75.7), 지팡이 (64.3), 굴건(48.4), 삼배 완장(43.2) 등 여자 상주 복장: 흰색 소복(92.1), 흰색 머리 리본(53.8), 지팡이(30.0) 등	남자: 검은색 양복* 굴건***, 요질*, 지팡이* 여자: 양장*, 흰색 머리 리본*, 지팡이*	남자: 검은색 양복*, 삼배 상복*, 굴건* 여자: 흰색 소복* 지팡이***	남자: 검은색 양복***, 삼배 상복**, 굴건**, 지팡이*** 여자: 흰색 소복** 지팡이***
제사 의례	실시 형식: 전통 유교식(42.3), 간소한 유교식(37.6), 기독교식 추도식(13.7) 실시 정도: 묘사(48.1), 차례(79.1), 기제사(80.6) 봉사범위: 3대(26.1), 4대(25.6), 2대(18.9), 부모(11.7) 참가자 범위: 4촌 이내(29.5), 형제자매(19.9), 6촌 이내(13.4) 기제사 복장: 깨끗한 평상복(남: 43.4, 여: 68.5) 제기마련: 따로 마련해 두고 사용(46.4), 물려 받은 제기 사용(22.1)	실시 형식: ns 실시 정도: 기제사* 봉사범위*** 기제사 복장: 남** 여자* 참가자 범위, 제기 마련: ns	실시 형식: ns 실시 정도: 묘사* 봉사 범위, 남성 의 기제사 복장, 참가자 범위, 제기 마련: ns 여성의 복장*	실시형식: 전통유교식*** 실시 정도: 묘사*** 차례***, 기제사*** 봉사범위** 참가자 범위* 기제사 복장: 남** 여** 제기 마련*
문중행사 참여	집안 계모임(53.3), 묘사(46.9), 중친회(45.7), 족보 발간(24.1)	중친회***, 묘사*** 족보 발간**	족보 발간**	중친회** 묘사***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2> 농촌 가족의 가정생활의례에 대한 태도

의례에 대한 태도	응답 분포(%)	연령차(χ^2)	소득수준차(χ^2)	종교차(χ^2)
중요시 하는 의례	1순위: 결혼식(56.0), 장례식(11.1) 2순위: 장례식(25.6), 결혼식(21.8) 3순위: 장례식(25.0), 기제사(12.8)	1순위 지적된 것***	ns	ns
희망 묘제	1순위: 가족묘지(69.0), 화장(9.1) 2순위: 공원묘지(28.2), 화장(20.2)	ns	ns	1순위 지적된 것***
무자일 경우 희망 제사 방식	안 지냄(48.1), 절 성당에서 지냄(23.9), 외손봉사(20.7), 양자입양(3.7)	ns	ns	73.02***
제사 제도 전망	차츰 없어질 것임(35.8), 장남 제사 계속(19.4), 종교기관 대행(17.5), 아들 딸이 나누어 맡음(10.7)	50.06**	35.86***	72.48***

** p < .01, *** p < .001